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월 30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044-203-5120), 임채욱 사무관(044-203-5124)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 한달 동안 20만명 넘어 … 내년 1월말까지 신청 가능

-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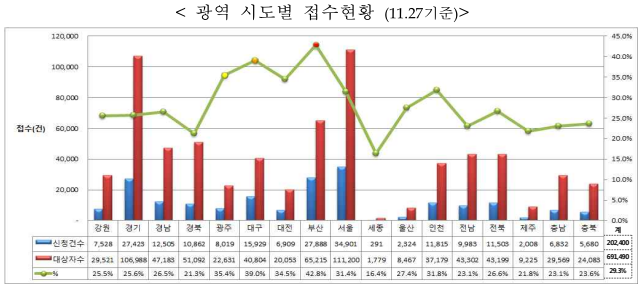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박근혜정부의 겨울철 서민대책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 수가 11월 한달 동안 20여만명(11.30일 기준 22만명 추정)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이면서 동시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이는 지난 11월 9일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스템의 공식 개통 이후 3주 동안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를 완료한 신청자 수로 시스템이 안정되고 맞춤형 개별 홍보 이후 일평균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힘

* 일평균 신청건수 : (11.9일주)10,944→(11.16일주)12,439→(11.23일주)17,097

< 광역 시도별 접수현황 (11.27기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신청건수	7,528	27,423	12,505	10,862	8,019	15,929	6,909	27,888	34,901	291	2,324	11,815	9,983	11,505	2,008	6,852	5,680	202,400
대상자수	29,521	106,988	47,183	51,092	22,631	40,804	20,053	65,215	111,200	1,779	8,467	37,179	43,302	43,199	9,225	29,569	24,083	691,490
%	25.5%	25.6%	26.5%	21.3%	35.4%	39.0%	34.5%	42.8%	31.4%	16.4%	27.4%	31.8%	23.1%	26.6%	21.8%	23.1%	23.6%	29.3%

○ 산업부는 일반 국민과 지원대상자의 관심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광역 시도별 신청 현황을 일단위로 공개할 예정임

□ 또한, 산업부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힘.

○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되며,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함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바우처 지원 사업을 1개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카드(체크·신용카드 등)로 정부 3.0의 소통과 협업의 가치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키로 결정

○ 국민행복카드사에서는 현재 지원대상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카드발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카드발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영업점(BC카드의 경우 우체국, 농협 등 본인이 선택한 은행)을 방문하면 신속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방문할 경우, 12월1일 이전에도 카드발급이 가능)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추가적인 카드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12월 사용 요금(통상 1월에 나오는 요금 고지서부터 적용)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됨.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12월부터 3월말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남은 경우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해서 차감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높아졌으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신청건수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산업부에서 68만여 지원대상가구에게 개별 홍보물을 발송(11.9~23일)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대상가구 명단을 전달하여 대상자 발굴 등에 활용토록 조치

○ 또한, 장영진 국장은 “신청기간이 1월말까지로 아직 두달이 남아 있으나 지원대상자들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여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대상자에게 당부”함.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임채욱 사무관(☎ 044-203-512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소비여건은 악화**되고 **에너지빈곤층*이 지속 증가추세**

*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 : ('08)120만 → ('11)178만 → ('12)192만

○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국정과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16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추가 예정

○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원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 향후 **사용에너지와 주거형태도** 고려,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

○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 지급**

- 카드사용에 익숙치 않은 수급자 등을 위해 **요금차감방식**의 가상카드(매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할인) 도입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은 11월부터 1월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 실제 **사용기간은 동절기 4개월('15.12~'16.3월) 동안** 운영

* 사용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전기사용요금에서 일괄 차감